

### 데스크 시국



박석천  
여론매체부 부국장

“올해 출판 지원을 받았지만 현실은 작품만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글만 써도 시간이 부족한데 현실은 다른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학교 강의를 나가고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틈틈이 작품 활동을 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외부 강이나 작품 정탁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시인 A 씨의 말이다. 그는 일찍부터 낱다른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만의 시 세계를 일구었다. 그러나 요즘만큼 힘든 적이 없다. 생활적인 면이 신경 쓰이다 보니 온전히 글에 집중할 수 없다. 좋아하는 시를 쓰고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을 부쩍 절감한다.

### 지원금에 목마른 ‘배고픈’ 예술인들

비단 시인 A 씨만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연을 그려온 화가 B 씨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예전과 다르게 재료비가 많이 인상됐다. 이전에는 캔버스 150호가 24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7만 원으로 50% 넘게 올랐다. 액자값도 10호 기준 6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2만 원으로 100%나 인상됐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 팔렸지만 이후로는 판매가 거

## ‘문화 수도’ 광주의 속살

의 이뤄지지 않는다.”

A 시인, B 화가는 일명 전업작가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이들에게 시와 그림은 삶의 존재 이유이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예술의 길을 포기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살이 팍팍한데 굳이 예술을 붙들고 있느냐”고 타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랫동안 창작의 길을 걸어온 이들이 다른 진로를 모색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지난달 ‘배고픈’ 광주 예술인들의 단면을 보여 주는 일이 있었다. 광주문화재단이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지원금 안내문이 게재되자마자 수백 명의 신청자가 몰려 재단 서버가 한동안 다운됐다. 이유인즉슨 ‘선착순 선정’이라는 문구 때문이었다. 하루 50만 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예술가들은 자정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이 과정에서 60여 명 예술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번호 등이 잠시 유출됐다. 재단은 당시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후시 모를 심사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모든 예술가에게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 수도’라고 일컫는 광주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못내 씁쓸하다. 문화 수도 광주의 ‘속살’을 보여 주는 것은 비단 그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문화재단이 광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소득은 451만 원이었다. 코로나 기간이라는 사실을 감안해도 이전의 766만 원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었다. 예술 소득을 포함한 연평균 개인 소득은 1430만 원으로 이전 1894만 원에서 약 500만 원 가

까이 감소했다.

문화 인프라 면에서도 문화 수도 광주의 상황은 열악하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의료·교육’ 보고서를 보면 광주는 도서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인프라를 비롯해 공연 횟수 등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대표 문화기반시설인 국공립 도서관은 24곳에 불과해 전국 시도 평균 69곳에 비해 35% 수준이었다. 다른 문화시설도 전국과 비교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미술관은 14개, 문화예술회관 7개, 지방문화원은 5개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전국 시도 평균은 각각 18개, 15개, 14개에 달했다.

### 문화 인프라와 창작여건 조성 시급

지난 25일 블랙핑크가 케이팝(K-POP) 걸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 역사를 새로 썼다. 얼마 전에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예미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등 6관왕에 올랐다. 그에 앞서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는 언어의 장벽을 뚫고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그뿐인가. 방탄소년단(BTS)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연상했을 때 떠오르는 대표 이미지로 각인될 만큼 K컬처의 브랜드가 됐다.

그러나 안으로 눈을 돌려 문화수도 광주를 돌아보면 답답해진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예방이라는 수사 뒤에 가려진 광주 문화의 현주소는 한마디로 외화내빈(外華內貧)이다. 문화 인프라와 창작 여건 면에서는 여전히 변방 수준이다. 화려한 수사와 네이밍은 예술인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때라야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배고픈’ 광주 예술인에게 문화 수도는 환상, 아니 허상일 수도 있겠다.

## 강진 ‘다산정치경제연수원’ 건립은 시대의 요구

이다. 제대로 된 한 명의 리더가 국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어낸다.

저자인 윤종록 전 차관은 4차 산업 혁명과 소프트 파워 전문가로, 정약용 어머니 가문의 후손이며 강진에서 나고 자란 강진 사람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산의 기술 발달과 상공업 진흥’을 통한 북국강병의 실현을 오늘날 ‘데이터 시대의 대전환’으로 바꿔 국가의 부흥을 이뤄낸다는 비전 때문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민선 8기, 강진군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 창조’의 방법론을 4차 산업 혁명에서 찾는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다산의 숨결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던 사회 지도층도 많다. 고(故) 조순 전 부총리, 한승수 전 총리, 손학규 전 장관, 도올 김용옥 선생 등 많은 이들이 다산초당에 다녀갔다.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다산은 200년을 훌쩍 뛰어넘어 여전히 큰 스승이기 때문이다.

연수원은 다산박물관 인근인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일원에 전남도와 강진군, 경기도와 남양주, 행안부가 공동 주체가 되어 재단을 출연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물들로 재단 임원진을 구성해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등 우리 시대의 ‘다양한 다산’을 양성한다는 취지이다. 아카데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집합 교육뿐 아니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바시’처럼 대중화시켜 다산 교육의 외연을 확장할 수도 있다.

다산정치경제연수원이 건립되면, 연 1만 명 이상의 교육생 유입과 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은 다산을 놓치고 그의 텍스트만을 남겼지만, 대한민국은 다산을 다시 놓쳐서는 안 된다. 2022년 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강진 다산정치경제연수원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게다가 OECD 가입국이 36국 중 청렴도가 27위에 그친다. 경제 규모 10위의 부국이지만, 격심한 빈부 격차로 그 안에서 사는 국민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

가 많다.

지금 우리에게서 그 어느 때보다 다산이 필요하다. 다산의 철학과 신념을 옹호하게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가 절실하다. 다산을 내 생활에 매칭시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국민적, 국가적 인임을 받는 기관이 필요하다. 다산의 18년 유배지였던 바로 우리 강진에서 해야만 하는 소명이 있는 사업이다.

다산정치경제연수원은 사회지도층이 자신을 객관화하고 정령과 애민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통섭과 융합의 아카데미로, 강진군은 민선 8기 출항과 함께 다산정치경제연수원 건립을 기획 중이다.

연수원은 다산박물관 인근인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일원에 전남도와 강진군, 경기도와 남양주, 행안부가 공동 주체가 되어 재단을 출연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물들로 재단 임원진을 구성해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등 우리 시대의 ‘다양한 다산’을 양성한다는 취지이다. 아카데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집합 교육뿐 아니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바시’처럼 대중화시켜 다산 교육의 외연을 확장할 수도 있다.

다산정치경제연수원이 건립되면, 연 1만 명 이상의 교육생 유입과 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은 다산을 놓치고 그의 텍스트만을 남겼지만, 대한민국은 다산을 다시 놓쳐서는 안 된다. 2022년 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강진 다산정치경제연수원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군 공항 이전과 광주·전남 도농상생 지원센터

필자는 광주·전남의 상생 사업으로 광주가 먼저 선도적으로 전남이 감동할 정도의 파격적인 도농 상생 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당장 눈 앞에 있는 군 공항 이전만을 놓고 보아도 광주에서는 시급하지만, 전남은 기피하고 싶은 현안이다. 광주가 전남 농어민들의 생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광주·전남이 함께 건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꼭 막힌 상생 협력 현안들이 풀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가 ‘광주·전남 도농상생 지원센터’를 광주 지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획기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남 지역 174개의 농어촌 체험 마을에 광주시민들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체험을 보내는 농어촌 체험 관광사업, 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사업, 부족한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 일자리 공급사업, 광주시민들을 전남 농어촌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귀농귀촌 사업 등이 있을 것이다. 농촌 체험객을 모으는 사업도 소비자들 사이에는 광주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각 사회단체·기관 등을 찾아가는 마케팅으로 적극 참여시켜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언뜻 이런 사업들은 전남을 위한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광주 사람들이 농촌 체험 관광을 가고, 좋은 먹거리를 얻으며, 일자리를 얻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 귀농귀촌을 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도

결국 광주 사람이다. 특히 귀농귀촌은 전남으로 사람이 빠져나가므로 광주에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그런 논리는 광주·전남이 운명 공동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광주에 살든 전남에 살든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전남이 인구 공동화되고, 농업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광주의 지속적인 성장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광주시청 앞에서 전남으로 가는 농촌 체험 버스가 상시적으로 출발하고, 농촌 일자리 지원 광고를 붙인 버스가 광주 시내를 누비고 다니며서 일할 사람을 실어서 전남에서 일하게 하고, 광주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 전남 지역 농산물이 신나게 팔리며, 전남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을 초대해 시골집에서 팍 파티를 여는 일상의 삶이 우리 곁에 온다면 광주·전남은 진정한 운명 공동체가 될 것이다.

특히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안은 귀농귀촌을 대폭 늘려 출퇴근 등 삶의 공간에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생태적인 자급자족의 삶을 확대시켜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광주·전남 도농상생 지원센터 사업 범위에는 당연히 광주 시내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광주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직과 사업을 만들어 적극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전남의 공동 투자를 유도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 社說

## 방공포대 조기 이전...무등산 정상을 시민에게

국방부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에 대해 지자체·국립공원공단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특히 국방부는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이전 부지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쳐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9일 무등산 방공포대 내에서 방공기지 이전 논의를 위한 현장 방문 행사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군 미사일방어사령관이 직접 이전 대책을 보고하고,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 제31사단·광주시·국립공원공단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한 군 핵심 당사자들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첫 자리다.

회의에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대책 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 협조 사항, 선(先)개방 시 제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실무 당사자들의 토의를 통해 보

완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광주시가 부지만 결정해 주면 율령 있다”고 밝힌 점이 고무적이다. 이는 그동안 “광주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된 이후 그 주변 부지를 찾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보다 진전된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로 광주 군 공항 영내, 서창 들녘, 동곡 예비군훈련장 등을 선정한 국방부와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무등산 정상에는 지난 1966년부터 공군 방공포대가 주둔 중이다. 이로 인해 천왕봉을 비롯한 정상부 탐방이 50여 년간 제한됐고, 기름 유출 등 환경 훼손도 잇따랐다. 특히 기술 발달로 방공포대가 더 이상 고지대에 주둔하지 않더라도 작전 활동이 가능해져 군부대 이전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하루라도 빨리 무등산 정상을 시민의 품에 돌려 줄 수 있도록 이전 부지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마지막 한 사람까지’ 행복자 가족 한 풀어 줘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옛 광주교도소에 암매장된 행방불명자가 화순 출신 23세 청년 Y 씨로 밝혀졌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암매장이 입증되고, 신원이 확인됐다. 이는 전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1980년 5월 당시 Y 씨가 어디에서 희생돼 옛 광주교도소에 암매장됐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Y 씨는 정부가 공식 인정한 행방불명자 78명 중 한 명이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 1~7차 보상금 지급 조사 당시 370여 명이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송원고 2학년이었던 김기운(당시 18세) 군의 경우 행방불명 상태였으나 2001년 10월 유전자 감식을 통해 광주시립묘지에 묻힌 사실이 21년 만에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 42년 동안 철저하게 은폐됐던 역사

적 진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5·18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인 암매장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그동안 행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고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행방불명 비인정자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5·18 행방불명자가 옛 광주교도소에 암매장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광주시와 경찰·검찰·법무부·국립과학사연연구소 등 여섯 개 관계 기관이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추수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물론 광주·전남 지역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광주시가 가족 풀이 작업을 열고 40년이 넘도록 고통과 그리움 속에 살아온 가족들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행방불명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암매장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 無等鼓

공자는 정치의 가장 큰 자산을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했다. 공자와 제자 간의 대화를 담고 있는 논어(論語) 안연(顔淵)편 7장에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된다’(民無信不立)는 구절이 있다. 공자는 그의 제자인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식량이 부족하고 군대가 총살하면 백성들이 정부를 믿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자공은 그 셋 중에 부덕이 버려야 하는 것을 물었고, 공자는 군대, 식량의 순으로 버려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고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대통령실은 ‘영민관 건립’과 ‘외교 참사’ 등의 논란으로,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당 대표 문제로 연일 내홍을 겪고 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뚜렷한 민생 해법 없이 현 정부와의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어려울수록 국민을 위로하고 민생을 돌보아야 할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 이제 국민들도 실낱 같은 기대감마저 포기하는 것 같다.

정치권에 대한 냉랭한 민심은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민심도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무

### 무신불립(無信不立)

관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3월 대선에서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투표율(81.5%)을 기록했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최저 투표율인 37.7%를, 8월 정당대회에서 광주의 권익당원 투표율은 34.18%에 그쳤다. 믿음은 쌓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순간이다. 정치의 큰 자산은 신뢰다. 정치국회에 임하는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무신불립을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 기고



강진원  
강진군수

‘생각건대 터럭 한 곱에 이르기까지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금에 와서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야 말 것이다’

개혁의 절박함이 드러난 ‘경제유표’의 서문으로, 동시에 소설 ‘대통령 정약용’의 첫 도입부(문장)이기도 하다.

경제(經世)는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遺表(유표)는 신하가 죽으면 임금에게 올리는 마지막 글이라는 의미이니, 비록 유배자의 신분이지만 백성과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던 다산의 충정이 어땠는지 짐작할 만하다.

경제유표는 기존 정책 제도의 모순과 이를 개혁할 분명한 방법을 담고 있는 국가 행정론으로 시대를 앞서갔던 천재의 혜안과 민본 위주 실사구시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 시대에 다산은 역사, 학회, 영화, 소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소환된다. 그중 하나인 지난해 출간된 ‘대통령 정약용’이라는 소설은 윤종록 전 차관의 작품으로, 다산이 시간을 거슬러 2022년으로 날아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리셋한다’는 내용

### 은폐칼럼



류동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하여 이전 후보지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등 논의가 진척되어 가는 분위기다. 광주 송정리에 있는 군 공항이 처음 만들 때는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광산구와 상무지구에 걸쳐 있는 도심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로 인한 소음과 개발 제한 등 여러 문제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민간 공항 또한 이전 예정이어서 광주의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전남도와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광주와 전남은 경제적·문화적으로 운명 공동체이고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함께 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 시도가 공감하는 것 같다. 다만 말로만 운명 공동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이고 꾸준한 도농 상생 사업이 진행되어야 시도민들이 진정으로 하나의 공동체라고 느낄 것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 항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